

# 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3. 11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 외 수 산 협 력 센 터

## 목 차

1. 중국, 후쿠시마 관련 일본 수산물 금지 재검토 .....	3
2. ISSF, 제20차 WCPFC 연례회의 앞서 성명 발표 .....	5
3. ICCAT 연례회의에서 상반된 결과 .....	7
4. 도쿄 지속가능한 해산물 회담, 해산물업계의 인권문제 발언 ...	9
5. FAO-Globefish 문어 시장보고서 .....	10
6. 미국 정부, 어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2천만불 투자 .....	12

- 2023년 9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의 계기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대화 와 협의를 통하여’ 무역 갈등의 실마리를 찾고자 나섰음
-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맞서 2023년 8월부터 일본의 수산물 수입에 대하여 완전 중단을 통보한 바 있음
- 중국의 외교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하여 “일본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장기적 감시 체계를 수립할 것”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 중국은 앞서 일본이 해양을 “사적 배수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식량 안보에 따라 방사성 물질 노출 위기를 예방하고나 금지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 일본은 중국이 일본 수산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하여 수입 금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중국이 정확히 언제 금지를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11월 26일에는 일본의 외무상 요코 카미카와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통해 양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위협을 완화할 것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음
- 7,800톤의 오염수에 대한 3차 방류는 11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지속하였으며 남은 13억 리터는 30년 동안 방류가 될 예정임
  - 일본 정부, 국제 원자력 기구(IAEA)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러한 방류가 환경 또는 인간의 수산물 섭취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발표하였음
- 러시아도 중국을 뒤따라 수산물 금지를 통보하였으며 한국은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일본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이어나가고 있음

- 중국의 수입 금지 품목이 진주, 산호 및 수족관용 어류와 같은 비식품류 품목으로 확산하여 일본이 우려를 표명함
- 또한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공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음

출처: Seafoodsource<sup>1)</sup>

---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food-safety-health/china-reviewing-fukushima-related-ban-on-japanese-seafood> (2023년 11월 30일)

-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ISSF)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20차 연례회의에 앞서 성명을 발표하여 이행 절차 등의 개선을 촉구하였음

### 1. 이행 절차

- 이행 감시 체계 회기간 작업반을 통하여 승인된 옵서버의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 미이행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수립하여 2024년 연례회의에 발표하고 채택 시켜야 할 것

### 2. 다랑어 자원량 보존 및 효과적인 관리 절차 (어획 전략) 수립

- 열대 다랑어 보존관리 조치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채택시켜야 할 것
  - 2023년 가다랑어 관리절차(MP)의 결과에 맞게 수립
  -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어획 사망률을 임시 목표기준점에 따라 제한할 것
  - 모호함과 예외 상황을 제거
  - 기타 어종에 대해서도 어획 제한을 수립할 것
  - 북태평양 날개다랑어의 어획 규제 규칙을 채택하여 2022년 채택된 어획 전략을 시행할 것
  -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의 목표기준점을 채택하고 관리 절차를 개발하는데 지속할 것
  - 2022년에 채택된 가다랑어 MP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3. FAD 관리

- 2024년에 검토될 수 있음 임시 타임라인을 수립하여 IATTC에서 채택된 생분해성 FAD 도입 타임라인과 일치시킬 것
- 근실시간성 FAD 위치 및 음향 자원량 데이터에 대한 규칙 및 요구 사항을 채택할 것

- FAD 작업반 역할 부여

- 나우루 협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FAD로그북"을 개발할 것
- FAD의 빠른 발견과 회수를 위한 방안

#### 4. 전자 감시 및 옵서버 커버리지

- 전자 보고 및 전자 감시 회기간 작업반 역할 부여
- 전자 감시 기준, 세부 사항, 및 절차를 완성하여 2024년에 채택시킬 수 있도록 작업
- 연승어업 옵서버 커버리지의 점진적 증가를 위한 계획 및 타임라인 채택

#### 5. 전재 규제 강화

- 해상 전재 규정 강화
  - 최소 기준 데이터 양식을 사용하여 전재 후 근실시간 전자 보고 (작업 후 24시간을 넘지 않음)
  - 모든 WCPFC 관리 어종에 대한 모든 전재 활동에 대하여 AIS와 VMS 데이터를 보고할 것
  - 해상 전재 허가 및 검토 절차의 기준 수립

#### 6. 부수어획 완화 및 상어 보호

- 과학위원회(SC) 및 기술이행위원회(TCC)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바닷새, 바다 거북 조치를 검토하고 2024년까지 최선의 완화 옵션을 권고할 것
- SC와 TCC가 2024년에 지느러미가 자연적으로 부착되어있는 상어가 양륙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상어 보존을 위한 관리 조치를 권고할 것

출처: ISSF<sup>2)</sup>

---

<sup>2)</sup><https://www.issf-foundation.org/about-issf/what-we-publish/2023/11/21/mixed-results-at-iccat-annual-session-compliance-reforms-and-electronic-monitoring-standards-among-positive-meeting-outcomes/>  
(11월 21일 기사)

□ 이행개선과 EMS에 대한 긍정적인 의회결과를 도출, 하지만 개선점은 많다.

○ 이행과정

- 5개의 다랑어 국제기구들 중 이행조사과정을 가장 많이 공개한 기구중 하나지만, 아직도 개선점은 남아있다.
- ISSF가 제휴한 NGO와 같이 제안한 비이행 대응 테이블을 2022년도에 ICCAT이 수용, 이를 활용한 것을 올해 볼 수 있었다.
- 앞으로도 비이행 대응 테이블이 많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 ISSF: International Seafood Sustainability Foundation

○ 다랑어 자원량 보존과 FAD관리

- 3년째 ISSF는 계속해서 ICCAT에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자원을 유지하는 열대다랑어의 정책을 강화하고, 엉키지 않는 생분해성 FAD 요건에 대해 관리를 개선시켜달라고 부탁했었다.
- 이러한 개선점들은 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책초안으로 많은 의논이 되었지만, 의회는 컨센서스(consensus)에 도달하지 못했다.
- 의회가 현존하는 열대 다랑어 보존정책을 2024년까지 유지, 자원량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정책을 향상시키는 것에 합의를 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

○ 전자 모니터링/리포팅과 옵서버 보급범위

- 전자모니터링의 개선은 이번 연도 ICCAT의 주요 논제였다. 특히 의회는 주낙어선과 건착망어선의 전자모니터링 최소규정을 도입하기로 동의했다.
- ISSF는 ICCAT이 다랑어 국제기구에서 두 번째로 전자모니터링을 도입한 것에 적극 환영한다.

○ 효과적인 관리방법 (어획 전략)

- ISSF와 협업체들은 모든 다랑어 국제기구에서 수확전략이 빠르게 도입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고로, ICCAT이 올해 새로운 수확전략을 행동에 옮기지 못한 것에 유감이다.

- 의회는 과학위원회가 추천한 서대서양가다랑어의 수확전략을 도입하지 않았다. 2024년엔 도입되길 바란다.
- 부수어획의 경감과 상어보호
  - ICCAT의 요구에 따라 ISSF는 상어와 바다조류를 포함한 부수어획종들에 대한 2023년도 리스트를 마무리했다.
  - 좋은 소식은 의회가 과학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청새리상어에 관한 TAC를 낮췄다는 것이다.
  - 특히, 자원량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허용량을 낮췄다.
  - \* TAC: Total Allowable Catch (허용어획량)
  - 하지만, 예외없이 모든 상어가 지느러미를 자연적으로 부착한 상태에서 착륙 시키는 것에는 의회가 동의하지 못해 매우 실망이다.
  - ICCAT멤버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15년동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으니, 2024년에는 상어보호를 위한 결단력있는 진행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다.
  - 또한, ICCAT이 청상아리 어획제한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지 못한 것과, 바다조류의 부수어획 경감정책을 현대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 올해 ICCAT 회의에선 우리가 희망하고 강력지지했던 것보다 적은 성과로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 2024년에 어떤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할지 확실해졌다. 그 의제는 다음과 같다:
  -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자원량이 지속가능한 레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열대 다랑어 정책을 강화시킬 것
  - FAD관리 정책의 많은 개선
  - 환적과 다른 MCS 정책의 개선
  - 자연적으로 부착되어있는 지느러미 요구
  - 바다조류의 보호를 현대화하기

※ 출처: International Seafood Sustainability Foundation<sup>3)</sup>

<sup>3)</sup><https://www.issf-foundation.org/about-issf/what-we-publish/2023/11/21/mixed-results-at-iccat-annual-session-compliance-reforms-and-electronic-monitoring-standards-among-positive-meeting-outcomes/>





#### □ 도쿄 지속가능한 해산물 회담(TSSS)에서 해산물공급망에서 야기되는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

- Outlaw Ocean Project\*가 10월 9일에 보고한 여파에 맞춰, 인권 문제에 초점을 둔 TSSS\*\*가 10월 17일 - 19일에 개최되었다.

\* TSSS: Tokyo Sustainable Seafood Summit (도쿄 지속가능한 해산물 회담)

\*\* The Outlaw Ocean Project: 바다에서의 인권, 환경, 노동에 대한 탐사보도를 하는 영국의 저널리즘 단체

- Outlaw Ocean Project의 보고는 중국의 위그루 민족이 신장의 동쪽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어, 해산물 가공시설에서 노역을 당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는 많은 미국의 소매상들이 위그루민족과 연관된 가공업체와 맺은 관계를 단절하거나 재평가하는 쪽으로 자극, 이러한 혐의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도록 해주었다.
- “해산물공급망에서의 인권유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는 일본 해산물 업계가 연류되었을 수도 있는 인권문제를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했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에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지도 같이 설명했다.
- 태국에 본사를 둔 Labour Protection Network Foundation(LPN)의 창립자가 와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 이 기구는 2014년~2016년 사이 인도네시아의 고립된 섬에서 2000명 정도의 억류된 어부를 구했다.
  - 이는 “Ghost Fleet”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 또한 LPN은 태국에서 건강이나 트라우마 치유, 쉼터 제공 또는 법적인 지원같은 구조 후의 케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 출처: SeafoodSource<sup>4)</sup>

4)<https://www.seafoodsource.com/news/premium/environment-sustainability/tokyo-sustainable-seafood-summit-presentations-spotlight-human-rights-abuses-after-outlaw-ocean-report> (2023년 11월 28일 검색)

- 세계 문어 양륙량이 수년간 감소 추세에 있고 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쿼터가 감소하여 공급량은 줄어든 전망이다. 수요 또한 약화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세계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기간 중 여행이 줄어든 결과임. 문어 가격은 다소 떨어졌지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모로코에서의 낮은 쿼터와 다른 지역에서의 어획량 저조로 문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량은 감소하고 있음. 모로코의 문어 어기는 9월 15일에 종료하였고 12월 중순까지 재개되지 않음. 여름 중, 모로코에서 문어 가격은 여름 어기의 시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음. 멕시코에서 문어 어기는 8월 1일에 시작하였으나 어획량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음.
- 문어 시장은 코로나 기간 중 매우 좋지 않았음. 대부분의 문어 가공업자들과 공급업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판매량 감소를 경험하였음. 하지만, 2021년에 외식업 부문의 점진적인 정상화로 경기는 회복되었음. 유럽시장의 문어 수요는 2023년에 비정상적으로 약했음. 보통, 여름에 수요가 높으나, 올해, 소비자들은 식품과 기타 다른 거의 모든 상품들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문어 소비를 주저하고 있음. 초여름의 수요 약세로, 가격은 압박을 받아 상당한 정도로 떨어졌음.
- 일본은 2023년 상반기에 2022년에 비해 문어 수입량이 15.6% 증가하였음. 총수입량은 20,837톤이었음. 일본으로의 주요 수출국은 모리타니아 6,679톤, 중국 5,005톤, 베트남 3,920톤이었음. 모로코로부터 수입량은 2022년 상반기 5,136톤에서 2023년 2,934톤으로 42.9% 감소하였음.
- 한국의 문어 수입은 2022년에 32,713톤에서 2023년에 31,102톤으로 동 기간 다소 감소(-5%)하였음. 공급국가들에서 주요 변화들이 있었음. 태국은 2022년 830톤에서 2023년에 1,393톤으로 對한국 수출량이 67.8% 증가하였음. 최대 공급국인 중국은 한국에 14,558톤을 수출하여 7.2% 증가하였고, 한국 문어 수입의 46.8%를 차지하였음.

- 지난 수년간, 문어 공급업자들은 원재료 가격의 높은 증가를 경험하였으나, 2023년 7월에 모로코의 좋은 상품들과 유럽 외식업 부문의 수요 약세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음. 모로코의 문어 가격은 2022년 1분기부터 떨어졌으나, 2023년 2월 초에 가격이 급등하였음. 그때부터 다소 변동은 있으나 높은 수준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음.

출처: [www.seafood.media](http://www.seafood.media)<sup>5)</sup>

---

5)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26792&ndb=1> (11월 2일 기사)

- 미국 상무부와 해양대기청(NOAA)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에 투자” 아젠다의 일부로 지역어업관리위원회들과 협력함으로써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천만불의 펀딩 계획을 발표하였음. 기후에 대한 역사적으로 가장 큰 투자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제공되는 이 펀드는 기후 관련 어업 관리 및 이행 노력에 관한 위원회의 개발과 진전을 지원할 것임.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수온 상승이 해양 서식지와 해양생물의 행태에 변경을 가함으로써 해양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펀딩은 기후변화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과학적 도구들의 통합, 기후변화 적응 및 기후 시나리오 계획의 이행 개선을 위한 관리조치 또는 과정들의 개발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노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임.
- “지역어업관리위원회들은 우리 국가의 해양 어업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들”이라고 미국 상무부 장관 Gina Raimondo는 말함.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이 펀딩은 기후 적응 및 기후 영향에 대한 대응 개선 관련 위원회의 중요한 작업들을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음.
- 8개의 위원회에 300만 달러가 균등하게 배분됨. 나머지 금액인 1,700만 달러는 우선순위 프로젝트들을 확인하기 위한 제안서 검토 과정이 끝난 후 배분될 것임. 위원회들은 다음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들 제안서를 NOAA에 제출할 것임:
- 기후 적응 및 기후 영향 대응 개선을 위해 필요한 어업관리 조치들 또는 과정들의 개발.
- 저개발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기후 관련 어업관리 계획 개발 및 이행 노력 진전.
- “해양 환경 변화는 어족자원의 분포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어업과 어업에 의존하는 공동체들에게 중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친다”고 NOAA 어업국 부국장 Janet Coit은 말함. “우리의 어업관리 위원회 파트너

들과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어업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가용한 과학을 사용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이 펀딩은 2023년 6월에 미국의 공동체들이 기후변화에 준비하고 적응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둔 33억불의 역사적인 투자의 일부로 처음 발표되었음.

출처: [www.seafood.media](http://www.seafood.media)<sup>6)</sup>

---

6)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26754&ndb=1> (11월 1일 기사)